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중국의 금융지주사 제도 신설 동향

단백질 타겟 치료제 개발 기술 동향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KDB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중국의 금융지주사 제도 신설 동향 ····· 1
단백질 타겟 치료제 개발 기술 동향 ····· 4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7

중국의 금융지주사 제도 신설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은 영 (liey@kdb.co.kr)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모회사가 非금융기업인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화하고 금융감독관리 체계 하에 정식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금융지주사 제도화 추진

◆ 이는 민영기업 주도의 금산융합(金産融合), 금융 겸업화에 따른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연결회계 기준 자본관리, 내부거래 등에 대한 세칙은 추후 발표

◆ 중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은행에 지주사 설립 및 증권업 겸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나 현재는 금융업 전반의 리스크 통제에 우선 순위

□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11월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허가 및 이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정식으로 개시

○ 모회사가 非금융기업인 금융그룹의 감독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주사 감독관리 시범 시행 방법>은 '20.9.13일 공개되고 11.1일부터 실시

- 동 방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2개 이상 유형의 금융사*를 실질 지배하는 금융기관이자 지분투자관리 이외 상업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회사로 규정

* 상업은행(향촌은행 미포함), 금융리스사, 신탁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증권사, 공모펀드관리회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 재산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자산관리회사와 국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기관

- 동 방법 시행으로 非금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려면 금융지주사 설립이 필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산하 금융사들을 지배·관리

* 실질 지배하는 금융사 중 상업은행의 총자산이 5천억위안 이상이거나 그 이외 금융사의 총자산 천억위안 이상 혹은 수탁관리자산 규모가 5천억위안 이상이면 금융지주사 설립 대상. 다만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민은행 거시건전성 평가에 의거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에 포함

○ 非금융기업 계열 금융그룹은 금융지주사 설립을 통해 인민은행 감독관리체계에 편입되며, 연결회계 기준이 적용된 자본 적정성 등의 세칙은 추후 발표 예정

- 동 방법의 시행에 따라 異種의 일정 규모 이상 금융사들을 실질 지배하는 非금융기업, 자연인 및 법인은 1년내에 금융지주사 설립 신청을 제출해야 함
- 금융지주사 주주 요건 등을 명시*하여 이를 금융관리감독 대상에 포함하고 순환 및 허위출자, 부당 내부거래 등 금지

* 인터넷 기업 등을 겨냥해 '시장 독점지위', '기술 우위'로 부당한 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포함

-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은 금융지주사들은 사명에 반드시 '금융지주(金融控股)'를 명기하고, 기존에 '금융지주', '금융그룹'을 사용하던 회사들은 사명 변경 필수

중국의 유형별 금융그룹과 핵심 기업

유형	지배회사(모회사)	대표 기업
금융사가 모회사인 금융그룹	은행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보험	핑안그룹, 중국생명보험, 중국인민재산보험
非금융사가 모회사인 금융그룹	중앙 국유(독자)기업	중신그룹, 광다그룹
	지방국유기업	톈진타이다그룹, 상하이국제그룹, 베이징금융지주그룹
	중앙기업 산하 자산운영사	자오상쥐금융그룹, 잉다국제지주그룹, 화능캐피탈서비스
	민영기업	밍톈그룹, 하이난항공그룹, 푸싱국제, 헝다그룹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 텐센트, 쑤닝, 징둥

자료 : 중은증권(中銀證券)

□ 이는 인터넷 기업 등 민영기업 주도의 금산융합(金産融合)* 및 종합 금융서비스 확산 추세가 초래한 금융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 중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등 금융사 지분 소유 허용. 다만 은행의 非금융사 지분 투자는 원칙상 금지

○ '15년 전후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인터넷전문은행 Webank, MYbank을 설립한 이후로, 중국의 금산융합 및 종합 금융서비스 구축은 대세로 자리매김

- 특히 알리바바는 인터넷 기술 및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머니마켓 펀드(MMF), 은행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Game Changer' 역할 수행
  ·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은 이후 소액대출, 보험, 신용조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나가며 종합 금융기업으로 성장
- 핀테크가 급부상함에 따라 기존 전통적 은행들도 고객 친화적 서비스와 금융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
  · 중국의 금융 겸업화는 '99년 보험회사의 펀드투자 허용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으나 '15년을 기점으로 가속화*

* '15년에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다, 핑안, 민생 등을 비롯한 9개 은행이 최초로 사모펀드 업무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은행의 非금융사 지분투자 금지 조항이 사실상 완화

○ 그러나 '17년 들어 각종 금융사를 자회사로 보유한 밍톈, 하이난항공, 푸싱 등 민영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 M&A, 불법 대출 등이 이슈화되면서 금산융합, 금융 겸업화에 따른 관리감독 제도 보완의 시급성 부각

- 밍톈홀딩스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0여개 금융사를 비롯한 100여개 상장사 지분을 보유해왔으나 '17년 CEO의 체포 이후 금융사 지분을 매각
  · 밍톈홀딩스가 지분 89%를 보유한 바오상은행은 '19년 유동성 위기*로 구제금융 대상이 된 후 국유화

* 인민은행 공시에 따르면, 밍톈그룹이 바오상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연체하여 이러한 위기 초래. 현지 언론은 동 은행이 수십억위안 규모의 계열사 대출을 연장한 후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도

· '20년 중국 금융당국은 밍톈그룹의 9개 금융 계열사 경영권을 추가로 접수

- 하이난항공그룹 산하 보하이리스는 금융지주사를 지향하며 '16년에 사명을 '보하이금융지주'로 변경하였으나 '18년에 다시 보하이리스로 복원*

* 당시 추진 중이던 보하이신탁 인수를 중단하고 본업인 리스업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후 톈진은행, 롄쉰증권 등의 금융사 보유 지분 매각

□ 중국의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은행의 지주사 설립 및 증권 자회사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나 현재로서는 관련 동향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

○ 금융지주사 제도화는 중국의 금산융합과 금융 겸업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나, 금번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금융업 전반의 리스크 통제에 무게

-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앤트그룹의 IPO를 중단시킨 후, '중대한 금융감독관리 정책 변화를 앞두고 무리하게 상장하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조치'라고 언급

○ 최근 공개된 <상업은행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여전히 은행의 증권 자회사 보유는 원칙상 불가

- 현재 중국의 대형은행들은 홍콩 등 해외 자회사를 통해 증권사 우회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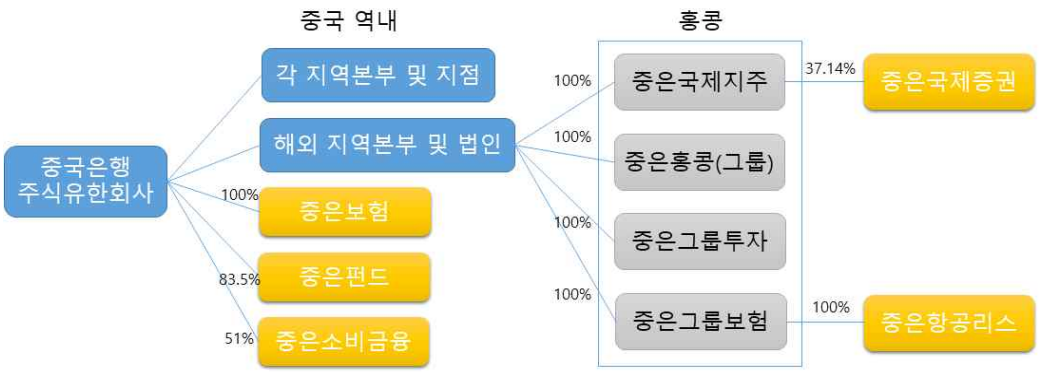
* 은행의 펀드 자회사 설립은 <상업은행의 펀드관리회사 설립 시범관리 방법> 등에 의거해 허용

· 다만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방 가속화 및 글로벌 투자은행의 자국 영향력 확대에 대비, '중국판 골드만삭스' 육성 계획을 물밑 준비 중일 가능성 상존*

* 교통은행 당위원회 부서기 차이윈거는 지난 10.24일 한 포럼에서 "조건을 갖춘 대형은행의 금융지주사 설립은 은행업과 非은행업간 융합발전 기제를 혁신시킬 것"이라고 언급

- 은행 등 금융사가 모회사인 금융지주사 설립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 제정 필요

중국은행(BOC)의 계열사 지배구조



자료 : 민생증권(民生證券)

단백질 타겟 치료제 개발 기술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고 대 경 (inodko@kdb.co.kr)

◆ 단백질 타겟 치료제 기술인 PPI, RNA, PROTACs은 기존 치료제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고 시장성이 큰 질병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최근 전도유망한 기술로 부각
◆ 치료제 개발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만 생존하기 보다는 각 기술들이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전망

□ PPI, RNA, PROTACs 기술은 메커니즘의 이론적 배경 및 기술의 시장성으로 인해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전도유망한 치료제 개발 기술로 부상

○ 상용화된 치료제의 대부분은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기술로는 공략 가능한 단백질에 제한이 있어 의학적 미충족 수요(unmet needs)가 발생
- 정상 단백질은 생체 내에서 대사 및 신호전달의 활성·제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단백질에 이상이 생길 경우 질병 발생

○ PPI*, RNA**, PROTACs*** 기술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기존 치료제가 공략하지 못했던(undruggable) 단백질을 타겟
- PPI는 구조 및 특성에 자유로운 단백질 타겟, RNA는 문제 단백질의 근본적인 생성 억제, PROTACs은 문제 단백질 분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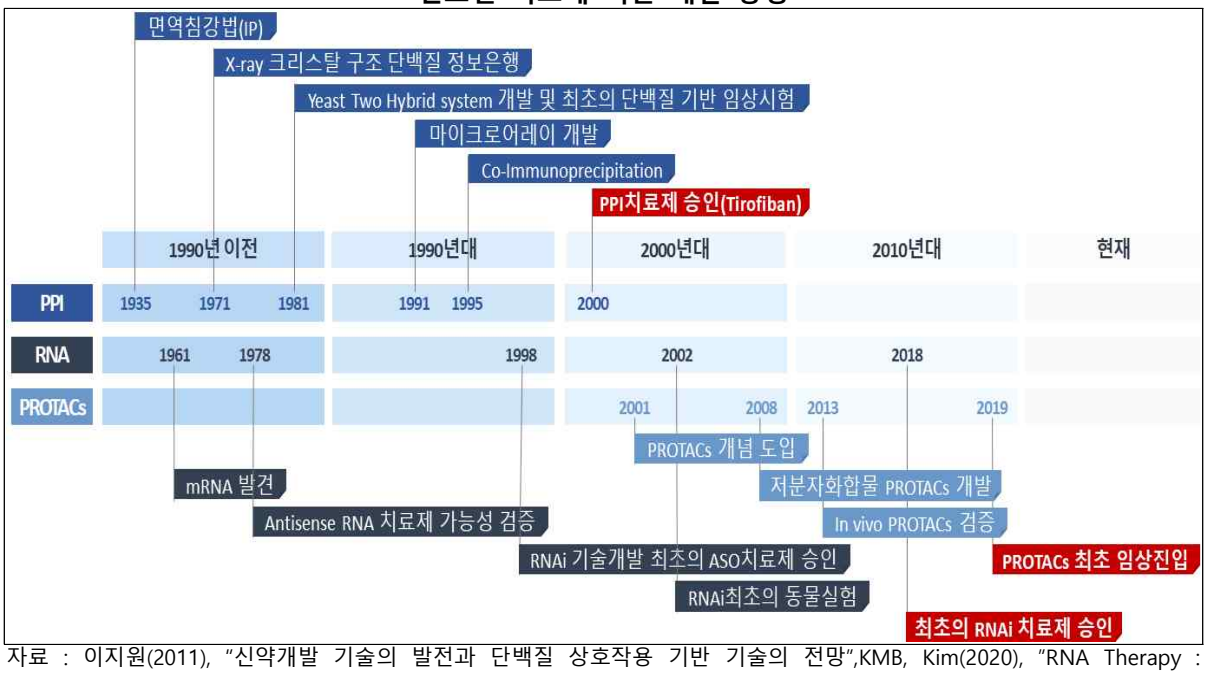
* PPI(Protein-Protein Interaction) 기술은 평평한 결합면, 적은 소수성 아미노산, 결합시 구조가 변하는 특성 등 기존 기술로 차단하기 어려운 단백질간 결합을 차단

** RNA(RiboNucleic Acid) 기술은 특정한 RNA(siRNA, Antisense RNA)가 이상 단백질을 생산하는 mRNA와 결합하거나 mRNA 일부를 분해하는 기능을 활용

*** PROTACs(Proteolysis targeting chimera) 기술은 문제 단백질이 PROTACs과 결합하면 E3 ligase에 의해 문제 단백질이 분해 가능 상태가 되고 프로테아좀이 이상 단백질을 분해하는 메커니즘

○ 각 기술 개념은 수십년 전에 알려졌으나 보조 기술의 부족, 적용 가능성 검증 미비로 산업계의 관심이 낮았다가 최근 관련 문제점들이 해소되고 있고 적용 가능한 질환의 시장 성장성으로 인해 관심 집중
- PPI, RNA는 수십년간 다양한 보조 기술이 개발되었고 약 60년만에 승인된 치료제가 출시되었으며, PROTACs은 20년만에 임상 중인 상황으로 시장성 높은 만성질환, 퇴행성 질환 등 다른 질환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연도별 치료제 기술 개발 동향



자료 : 이지원(2011), "신약개발 기술의 발전과 단백질 상호작용 기반 기술의 전망",KMB, Kim(2020), "RNA Therapy : Current Status and Future Potential", CMJ, Drug Discovery Today: Technologies(2019), "PROteolysis TArgeting Chimeras(PROTACs)-Past, present and future", 당행 재작성

□ PPI, RNA, PROTACs의 기술 개발 수준 및 특성 비교시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

○ PPI, RNA 기술은 치료제로 승인된 사례가 있고 관련 보조 기술이 PROTACs에 비해 앞서있으나, PPI는 후보물질 발굴이 어렵고 RNA는 특정 조직에 집중

- PPI는 Co-IP, HCS, FRET 등 다양한 단백질 분석 기술이 개발되었고 RNA는 염기 서열 파악시 후보물질 발굴이 쉬워 최근 많은 RNA 전달 기술 개발
- PPI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실패 사례가 많으며 RNA 치료제는 간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간과 관련 없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어려움

○ PROTACs 기술은 결합 특성과 치료 영역 측면에서 PPI와 RNA에 비해 강점이 있으나 후기임상(임상 2/3상)의 효능 검증 및 기반 기술 발전이 필요

- PROTACs 기술은 약한 결합으로도 단백질 분해가 가능해 단백질 구조 특성에서 자유롭지만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는 다양한 E3 ligase 개발이 필요하고 단백질과 E3 ligase의 결합·분해 능력을 분석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
- PROTACs 기술은 현재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뇌를 타겟하는 치료제 개발이 어렵지만 그외 다양한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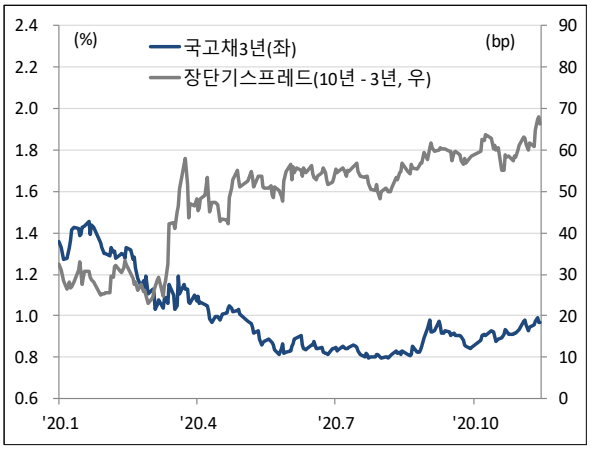
□ 치료제 개발 기술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특정 기술만 생존하기 보다는 각 기술들이 치료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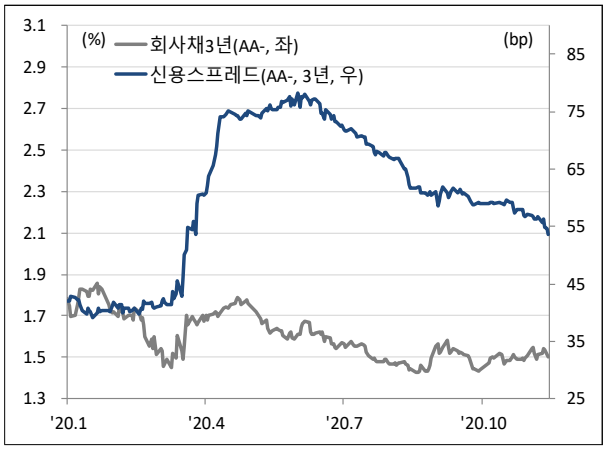
○ 한 시대를 풍미한 치료제 개발 기술들은 일정 시점에서 한계를 보이지만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로 진화
- 화학항암제는 여전히 강력한 효과로 인해 1차 치료제로 사용되며 항체약물결합체와 같은 새로운 기술로 진화
- 항체치료제도 표적항암제에서 이중항체, 면역관문억제제 등 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 PPI, RNA, PROTACs 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 단일 치료제로 사용되거나 다른 치료제와 함께 병용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
- 신기술들은 undruggable 단백질을 공략하거나,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
- 질병은 다양한 단백질의 복합적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단백질을 타겟하는것 보다 여러 단백질을 타겟할 때 치료 효과가 높음

금리 · 환율 · 주가

금 리 국고채3년 0.965% (2.2bp ⬆), 신용스프레드 53.6bp (3.2bp ⬇)





환 율 원/달러 1,115.6원 (4.8원 ⬇), 엔/달러 104.65엔 (1.34엔 ⬆)

주 가 코스피 2,493.87pt (3.20% ⬆), 코스닥지수 839.14pt (0.28% ⬆)

* ( )는 전주대비 상승↑, 하락↓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03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